

큰스님 수행한담

괴로움 투성이지요



1947년 열린 조선불교지도자수련회 기념 사진(들쭉날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태허스님).

나는 12살되던 해 당시 큰 본찰이었던 문경 김용사로 입산을 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절에 의탁하게 된 것이지요. 세속의 잣대로 보면 불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다 나에게 주어진 인연도리였습니다.

데 하루는 법준스님이란 분이 찾아와서는 "지금 순호스님이 전염병에 걸려서 격리되어 있는데 그대로 두면 목숨을 잃게 될 것 같다"면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청담스님은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

차별없는 마음자리에서 번뇌소굴이 법신불임을 관하면 청정심 볼 수 있어요

삼과 의복을 제정하는 등 청정가풍을 정립하기 위한 정화불사의 기치를 울리게 되었지요.

47년경에는 불교 대구중앙포교사로 부임하여 경상북도 전역을 포교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오직 불교를 널리 알리자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계종 종정까지 지내셨던 청담스님은 후일 7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원주에 있는 모 군부대에서 사찰을 건립, 낙성식에 초대됐습니다. 각자 종대표로 참석해서 만났는데 그날 저녁 청담스님은 숙소로 돌아가다가 유경을 달리고 갑니다. 그때 그 안타까웠던 마음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었지요.

김용사 중앙에 있는 선방에서 한 5년간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열불삼매로 일관했습니다.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아미타불에 의거해서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여든 두 해동안 살아왔지만 그렇게 심한 환란과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던 것도 돌이켜보면 아미타불 열불정

은 다문견고(多聞堅固)하고 또 다음 5백년간은 조사견고(造寺堅固)하며 마지막 5백년간은 투쟁견고(鬪爭堅固)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처님께서 입적하신지 2천5백년도 훨씬 지난 시점이므로 가히 말법시대라 하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연교(言教)는 난무하되 행종(行證)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법시대는 지계견고하고 삼법시대는 선정견고하며 말법시대에는 열불견고하고 하였으니 말법시대에는 아미타의 교법인 열불수행이 수승하여 가통입로(可通入路)라 하였습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 무량광불 혹은 감로불이라고도 하는데 아득한 과거세에 법장비구의 몸으로 있을 때 시방세계 2백10억의 국토중 가장 훌륭한 곳을 골라 이상세계를 구현할 것을 서원하고 48가지 대원력을 세운 분입니다. 아미타불은 근기가 낮은 중생들도 쉽게 성불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나무아미타불만 부른다고 성불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화두드는 참선이나 열불이나 수행자 자신이 공적으로 일일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가네 그것 한가지만 들고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매일여가 되고 나중에는 생사일여로 나아갑니다. 화두는 사무치는 분심과 대의심이 생명인데 오날날에는 좀처럼 되질 않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응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부 따로 생활 따로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게 우선 필요합니다. 모든 생활이 곧 공부와 직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용시키려 노력하세요.

모든 현상의 원인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화두를 타파하기 위하여 용맹심으로 치열하게 정진하세요. 지성으로 아미타불을 열송하면 자신의 잘못된 업장도 차츰 소멸되고 번뇌가 사라지고 청정한 자신의 마음자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체의 차별이 없는 그 마음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기질투가 난무하는 번뇌소굴이 곧 법신불의 전신체(全身體)임을 관(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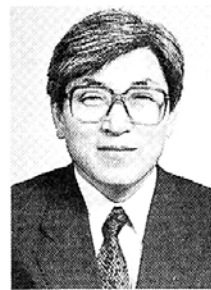
또한 부처님 열반후 첫 5백년간은 해탈견고(解脫堅固)하고 다음 5백년간은 선정견고(禪定堅固)하며 그다음 5백년간

정리=이윤호 기자

나와 경전



미륵경



오형근 대승불교연구원장

미륵은 범어로 '마에트리야(Maitreya)' 즉 '자비'를 뜻한다. 자비를 뜻하는 미륵의 명칭을 갖게 된 것은 수행할 때 자심정(慈心定)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미륵은 성불하기 전의 수행기간에는 보살이라 칭하고 앞으로 인간계에 나타나서 성불할 것으로 믿고 불타라고 칭하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

미륵과 관련된 경으로는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출생하여 일생보처보살로서 천인들을 교화하는 내용을 기록한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경성역), 도솔천에서 인간세계에 하강하여 성불하고 정토의 세계를 건설하는 내용을 기록한 <불설미륵하생경>(축법호역)이 있다. 또 <불설미륵하생경>과 내용이 중복되는 <불설미륵하생경>(구마라집역)이 있는데, 세경전을 <미륵삼부경>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다른 번역이 있으며 이름이 중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된다. 미륵보살은 곧 출가하여 화림원의 용화보리수 아래에서 출가한 당일에 설법(說佛)하게 된다. 그 후 세 번의 법회를 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한다. 그때 왕과 신하를 비롯 모든 사람들이 미륵불에게 귀의하여 성인(聖人)이 된다. 그때는 또 미륵불의 복력과 인간들의 복력이 수승하여 인간의 마음이 청정함을 물론 자연환경도 인

간을 즐겁게 하고 하나도 유해한 것이 없다고 한다. 인간의 수명도 길고 생노병사의 무상함도 없으며 오직 선정과 지혜로써 생활할 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이루어진 세계를 흔히 미륵정토라 하고 용화세계라고도 한다. 미륵불은 도솔천에 영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택이 많은 사바세계에 몸소 하강하여 무지한 인간을 계몽하여 보살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미타

도솔천서 미륵보살 하강은 방편 용화세계 기원하는 민중신앙으로

복되지만 소개한다면 구마라집의 번역인 <불설미륵하생경>과 의정법사의 번역인 <불설미륵하생불경>과 번역인을 알 수 없는 <불설미륵내시경> 등이 있다.

본래 미륵보살은 석가모니불의 제자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보살에게 미래에 틀림없이 성불한다고 말하면서 수기를 하고 우비리라는 제자에게 "미륵보살은 지금으로부터 12년후에 명경(命經)하여 도솔천에 상생하며 일생보처보살로서 5백만년의 천인(天人)을 교화하고 제도하게 될 것이다. 한 대신은 선법당을 지어 주기도 하며 모든 천인들이 칠보로 된 장식물을 공양하고 음성과 악기를 연주하며 미륵보살을 즐겁게 모시게 된다. 그리고 모든 천인들은 미륵보살의 설법을 듣고 무상도심(無上道心)을 발하여 보살의 위상을 구족하게 된다"고 예언하였다.

이와 같이 미륵보살은 도솔천에 상생하여 선법당에서 설법하고 천인들을 교화한 후 56억만년이 되어서 인간세상인 열부제에 하강하게 된다. 대바라문인 묘법(妙法)이라는 분을 부(父)로 하고 범마바리(梵摩波提)라는 분을 모(母)로 하여 금석의 32상을 구족하고

정토사상 보다도 더욱 훌륭한 사상이라고 경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미륵정토사상은 미래에 극락과 같은 이상세계를 건설하려는 불자들에게 널리 퍼져 민중들에게서 많이 신앙하게 되었다. 이 미륵신앙은 특히 법상종에 도입되어 법상종의 사찰에는 미륵불을 모시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법상종의 존전인 유가사지론 등 오대부론(五大部論)이 도솔천의 미륵보살이 하강하여 설하였다고 신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은 삼국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대에도 56억만년이 선정의 일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믿고 미륵부처님이 하강하기를 고대하며 신앙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어려움으로 중도에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때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들려주곤 한다. "미륵불은 미래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깊어 마음을 열 수 있다면 미륵불은 지금 바로 우리마음 속에 있습니다"라고. 불교에서의 시공간의 의미는 방편일 뿐이다. 이 이치를 안다면 미륵불도 용화세계도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공부 따로 생활 따로 나누어 생각마세요”

“모든 현상의 원인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다보니 잔심부름도 많이 해야했지만 온통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은사스님을 시봉하는데 있어 밥은 공양주가 했지만 나물장만은 내가 직접 산이나 밭에서 뜯어다가 했습니다. 대신 어른스님들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제자를 거두었습니다. 웃음 장만해주고 학교도 보내주었으며 경전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해화전문학교도 은사스님의 도움으로 다녔습니다.

28세때 김용사 상주포교당 주지로 머무를 때 일입니다. 먼 훗날 조계종 승려로서 정화불사의 최선봉에 섰던 청담스님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주경찰서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청담스님은 순호스님으로 불리웠

다.

청담스님을 만나려고 전국의 내로라하는 수좌들이 상주포교당으로 많이도 찾아왔지요. 그중에는 지금은 입적하신 성철스님, 자운스님, 홍경스님도 끼어 있었습니다. 도반들 끼리의 만남은 옆에서 지켜 보기도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해방되던 해 문경 봉암사 주지를 거쳐 김용사 범무국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봉암사는 김용사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산선문의 하나인 봉암사에 선방이 없어서야 되느냐는 여문이 비등했어.

정화를 추진하는 스님들과 함께 새로이 선원을 건립하고 제방의 남자들을 받아 들였습니다. 청담스님 한국스님 성철스님을 비롯 전국의 수좌들이 모여서 장

근 덕택이 아닌가 합니다. 열불정군이 몸과 마음의 전체로 순수해지면 화두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 신앙의 소의경전인 <아미타경>은 다른 대부분의 경전들이 제자들의 간청으로 인한 부처님의 설법인데 반해 부처님 자신이 자정해 살고 있는 이른바 '무문자설경(無問自說經)'의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의 시대를 3등분하여 정법(正法)시대, 상법(像法)시대, 말법(末法)시대로 구분했습니다. 즉 경전에 의하면 불멸이후 첫 5백년간은 정법시대이고 이후 1천년은 상법시대며 다음 1만년은 말법시대라 했습니다.

또한 부처님 열반후 첫 5백년간은 해탈견고(解脫堅固)하고 다음 5백년간은

Advertisement for 'Soft Words, Beautiful Fragrance'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by Ilseon Buddhism (일타큰스님 법어집). The ad features a central graphic with a lotus flower and text describing the book's content. Below the graphic, there is a list of 10 books for sale, including titles like 'Life in the Heart of Daily Life' (생활 속의 기도법), 'Prayer' (祈禱), 'The Path of Enlightenment' (시작도 끝도 없는 길), 'Starting Mind' (시작하는 마음), 'Aspiration for Enlightenment'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Mind Looking at Itself'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Law of Karma' (법공양문), 'Five Steps to Enlightenment' (범망경보살계-5), and 'Law of Karma' (감로법문). Each book entry includes a brief description and price. At the bottom, there i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Ilseon Buddhism, including a phone number and address.